

간호 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 의사소통능력 및 도덕적 민감성이 간호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정계선¹, 최영실^{2*}

¹조선간호대학교 간호학과, ²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ing Factor to View on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Moral Sensitivity and Ability of Communication in Nursing Students

Gye-Seon Jeong¹, Young-Sil Choi^{2*}

¹Chosun nursing college

²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425명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의사소통능력 및 간호 전문직관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간호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간호 전문직관의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서술적 상관관계연구로, 2019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I시와 K시의 간호학과 학생 425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SPSS 27.0 버전에서 사용한 평균 및 표준 편차, t-검정, 일원 분산 분석, Pearson 상관 관계, Scheffé 및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 여학생이 365명(90.6%), 22.67±6.29세이고, 4학년이 147명(34.6%),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393명(92.5%), 윤리적 가치관이 상황에 따라 다른 학생은 182명(42.8%)이었다. 생명윤리의식은 성별($t=2.60, p=.009$), 나이($F=2.99, p=0.19$), 결혼($t=2.41, p=0.16$), 임상경험($t=2.30, p=0.22$), 윤리적 가치($F=4.77, p=.009$)에서, 도덕적 민감성은 학년($f=3.25, p=0.22$), 결혼상태($t=-2.23, p=0.35$), 임상경험($t=2.12, p=0.35$)에서, 의사소통능력은 윤리적 가치($F=13.20, p<.001$), 간호 전문직관은 임상실습 경험($t=2.15, p=0.32$)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 전문직관은 학년($r=.11, p=.028$), 생명윤리의식($r=.20, p<.001$), 도덕적 민감성($r=.33, p<.001$)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도덕적 민감성($t=5.06, p<.001$)과 의사소통능력($t=3.05, p=.002$)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률이 13.7%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들의 간호 전문직관은 도덕적 민감성과 의사소통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a nursing student's view of nursing professionalism. **Method:** The study used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research design. Data collected from 1st October to 30th November 2019, enrolling 425 subjects from two cities, were analyzed by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cheffé's method,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7.0. **Results:** The subjects included 365 women (90.6%). The average age was 22.67±6.29 years, including 147 seniors (34.6%) and 393 with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92.5%), 182 subjects (42.8%) responded that ethical value depends on the situation. Considering factors that affect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tained in gender ($t=2.60, p=.009$), age ($F=2.99, p=.019$), marital status ($t=2.41, p=.016$),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t=2.30, p=.022$), and ethical value ($F=4.77, p=.009$). The grade ($F=3.25, p=.022$), marital status ($t=-2.23, p=.035$), and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t=2.12, p=.035$) influenced moral sensitivity, whereas ethical value ($F=13.20, p<.001$), communication ability, and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t=2.15, p=.032$) were factors influencing the view towards nursing professionalism. View of nursing professionalis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grade ($r=.11, p=.028$),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r=.20, p<.001$), moral sensitivity ($r=.33, p<.001$), and communication ability ($r=.27, p<.001$). Of these, moral sensitivity ($t=5.06, p<.001$) and communication ability ($t=3.05, p=.002$) were the major influencing factors, with an explanation rate of 13.7%. **Conclusion:** Moral sensitiv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are the factors that majorly influence nursing students' views toward nursing professionalism.

Keywords : Professionalism, Bioethics, Communication, Morals,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Young-Sil Choi(Kyung-In Women's University)

email: kiwicys@kiwu.ac.kr

Received July 12, 2022

Accepted October 7, 2022

Revised August 24, 2022

Published October 31,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에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게 하고, 간호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에 대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이에 따른 다양한 간호요구를 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간호사에게는 변화된 의료기술을 대상자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보다 깊이 있는 전문적 지식은 물론이고, 윤리적 가치 판단과 도덕적 차원의 비판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간호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1]. 간호사는 전인적 간호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전문적 지식뿐 아니라 간호전문직에 대한 가치 체계를 확립하고, 도덕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한 윤리적 문제해결과정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2].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고하게 정립된 생명윤리의식은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고, 간호사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며, 비로소 대상자의 정보제공자,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다[3]. 물론 간호사는 다양한 실무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어 그들이 겪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윤리적 의사결정은 간호사로서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도덕적 신념에 입각한 윤리적 의사결정 풍토와 의사결정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이 높고, 전문적 간호발전과 간호직무에 긍정적 경험을 제공한다[4]. 마찬가지로 간호 대학생들도 다양한 임상환경에서 실습을 하고, 다양한 간호문제 상황에 직면하고, 실습환경에서 간호사들이 어떤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지 관찰하며, 의료 환경에 결정적 역할은 하지 않으나 간호 대학생 스스로 이 상황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특정 상황의 윤리적인 문제를 규명하고 다양한 행위의 과정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 민감성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초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대상자를 둘러싼 간호 상황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대상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행동을 취하기 위해 필수조건이다[5]. 간호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간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이러한 도덕적 가치관과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인으로서 이들이 제공하는 간호에 대한 신념과 높은 가치관은 간호사가 전문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며, 이는 간호교육을 통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이것이 발전하여 임상간호사의 전문직관으로 이어진다고 볼 때[6] 긍정적인 간호 전문직관은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시작할 간호 대학생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7]. 간호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으로서, 전문직으로서의 자세를 바탕으로 지식뿐 아니라 실무능력도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도덕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에 대한 윤리적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7]. 지금까지 생명윤리의식과 도덕적 민감성 그리고 간호전문직간의 연관성을 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명윤리의식 형성에 핵심요소인 도덕적 민감성과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능력을 알아보고, 이것이 추후 임상간호사로서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간호 대학생들의 간호 전문직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 방법

2.1.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및 의사소통능력이 간호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1.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I시와 K시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 대학생を対象으로 편의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Linear multiple regression을 기준으로 G*power 프로그램[8]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06으로 예측변수 9개를 포함하여, 검정력 .95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본 수는 402명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43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완전하지 않은 응답을 제출한 5명을 제외한 425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였다.

2.1.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생명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의사소통능력 및 간호 전문직관으로 일반적 특성 도구를 제외한 도구들은 개발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도구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1) 생명윤리의식

본 연구의 생명윤리의식 측정 도구는 의료계열 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Kwon [9]이 개발한 생명윤리의식 도구이다. 총 52문항으로 구성된 생명윤리

의식 도구는 9개의 하위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각 하위 영역의 문항 수 태아생명권 5문항, 인공임신 중절 6문항, 인공수정 7문항, 태아진단 5문항, 신생아 생명권 5문항, 안락사 5문항, 장기 이식 4문항, 뇌사 5문항, 인간생명공학 7문항과 존엄사, 안락사, 심폐소생술금지(Do not resuscitation, DNR)의 각 1문항이 포함되어 총 52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는 4점 매우 찬성부터 1점 매우 반대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윤리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중 역환산 문항은 태아생명권, 인공임신 중절, 인공수정, 태아진단, 신생아 생명권의 각각 1개 문항과 안락사의 3개 문항이다.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값은 Kwon [9]의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76이었으며, 선행연구[1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9이었다.

2) 도덕적 민감성

본 연구의 도덕적 민감성 측정 도구는 Lütznér과 Nordström [11]이 개발하고 Han, Kim, Park 과 Ahn [12]이 한국형으로 재구성한 도구를 Yoo와 Shon [5]이 간호 대학생에게 적합하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구성된 도덕적 민감성 도구는 5개의 하위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각 하위영역의 문항 수 환자 중심 간호 5문항, 전문적 책임 7문항, 갈등 7문항, 도덕적 의미 6문항, 선행 4문항이다. 점수 산정은 7점 Likert 척도이며 각 문항에 대하여 '완전히 동의함' 7점부터 '절대로 동의안함'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76, 선행연구[10]에서 Cronbach's Alpha .81,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69이었다.

3) 의사소통능력

본 연구의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Hur [13]가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한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CICC)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포괄적인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에는 자기노출, 역사지시,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 관리, 표현력, 지지력,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 간파, 반응력, 잡음 통제력에 대한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신뢰도는 Hur [13]가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7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4) 간호 전문직관

Yeun 등[14]이 개발한 간호 전문직관 29문항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실무 역할, 간호의 독자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5점 '매우 그렇다' 부터 1점 '매우 그렇지 않다'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 전문직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Yeun 등[1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2.1.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9년 10월 1일부터는 11월 30일까지였으며, 본 연구 대상자는 I시와 K시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425명을 대상으로 편의 모집하였다. 연구자 모집은 모집문건을 통해 하였으며, 연구자가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윤리적으로 고려할 점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총 430명의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15분이 소요되었으며, 회수한 응답지 중 응답이 완성되지 않은 5부를 제외한 425부에 대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회수율은 98.8%였다.

2.1.5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하여 대학 기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IRB No. 2-700816-A-N-01(조건)2017-07-01)를 거친 후 기준에 따라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시작 전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비밀 보장이 되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 3년 동안 잠금장치에 보관한다는 것, 그리고 연구에 참여하는 중이라도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동의하여 자발적 참여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을 받았다.

2.1.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및 범위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종속 변수들의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 t-test로 분석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미치는 영향요인은 multiple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2.2 연구 결과

2.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여성이 385명(90.6%), 평균 나이 22.67세, 20-29세는 348명(81.9%), 학생들의 학년 층은 1학년 58명(13.6%), 2학년과 3학년은 145명(34.1%), 4학년 147명(34.6%)이었다. 미혼 403명(94.8%), 임상실습 경험 '있음' 298명(70.1%), 윤리적 가치관은 상황에 따라 다름이 182명(42.8%)이었다.

2.2.2 생명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의사소통능력 및 간호 전문직관 점수

대상자의 생명윤리의식 2.84±0.19점, 도덕적 민감성 4.51±0.81점, 의사소통능력 3.69±0.51점, 간호 전문직관 2.95±0.35점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2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ean ± SD
Gender	Male	40 (9.4)
	Female	385 (90.6)
		22.67±6.29
Age(year)	≤19	57 (13.4)
	20-29	348 (81.9)
	≥30	13 (3.0)
Grade	Freshmen	58 (13.6)
	Sophomore	145 (34.1)
	Junior	145 (34.1)
	Senior	147 (34.6)
Marriage status	Married	22 (5.2)
	No married	403 (94.8)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Have	298 (70.1)
	Not have	127 (29.9)
Ethical value	Very concrete	87 (20.5)
	Sometimes confusion	156 (36.7)
	Different depends on situation	182 (42.8)

SD : standard deviation

2.2.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의사소통능력 및 간호 전문직관 점수

대상자의 생명윤리의식 점수는 성별(t=2.60, p=.009), 나이(F=2.99, p=.019), 결혼상태(t=2.41, p=.016), 임상실습경험(t=2.30, p=.022), 윤리적 가치관(F=4.77, p=.00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도덕적 민감

성은 학년(F=3.25, p=.022), 결혼상태(t=-2.23, p=.035), 임상실습 경험(t=2.12, p=.03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의사소통능력은 윤리적 가치관(F=13.20,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간호 전문직관은 임상실습경험(t=2.15, p=.03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3).

Table 2. Score of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Moral Sensitivity, Ability of Communicati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Subjects

(N=425)		
Variables	Mean±SD	Rang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2.84±0.19	2.83~2.87
Right to life of fetus	2.84±0.62	2.76~2.92
Artificial abortion	2.59±0.40	2.54~2.64
Artificial insemination	2.82±0.48	2.82~2.76
Prenatal diagnosis of fetus	2.87±0.31	2.83~2.91
Right to life of newborn	3.30±0.44	3.24~3.36
Euthanasia	2.81±0.26	2.77~2.84
Organ transplantation	3.03±0.43	2.98~3.09
Brain death	2.57±0.32	2.53~2.61
Human biotechnology	2.79±0.31	2.75~2.83
Moral sensitivity	4.51±0.81	4.43~4.58
Patient oriented care	4.73±1.00	4.63~4.58
Professional	4.29±0.84	4.21~4.37
Conflict	4.58±0.96	4.48~4.67
Moral meaning	4.77±1.01	4.68~4.87
Benevolence	4.24±0.90	4.16~4.33
Ability of communication skill	3.69±0.51	3.65~3.73
Views on nursing professionalism	2.95±0.35	2.92~2.97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	3.18±0.41	3.12~3.23
Social recognition	2.60±0.57	2.52~2.67
Professionalism of nursing	3.07±0.50	3.01~3.14
Role of nursing community	3.25±0.55	3.18~3.32
Identity of nursing	2.25±1.01	2.12~2.37

2.2.4 일반적 특성, 생명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의사소통능력 및 간호 전문직관의 상관관계

간호 전문직관과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는 일반적 특성은 학년(r=.11, p=.028)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임상실습경험(r=-.11, p=.021)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생명윤리의식(r=.20, p<.001), 도덕적 민감성(r=.33, p<.001), 의사소통능력 (r=.27, p<.001)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4).

Table 3. The Score of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Moral Sensitivity, Ability of Communication skill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425)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Moral Sensitivity			Ability of Communication Skill			Nursing Professionalism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2.92±0.22	2.60	.009*	4.58±0.98	.64	.520	3.77±0.51	1.08	.310	2.95±0.36	.11	.917
	Female	2.84±0.19			4.50±0.80			3.68±0.50			2.95±0.35		
Age(year)	≤19	2.82±0.16	2.99	.019*	4.31±5.78	2.71	.068	3.68±0.54	.62	.646	2.94±0.29	.97	.414
	20-29	2.85±0.20			4.55±0.86			3.70±0.49			2.95±0.36		
	≥30	2.81±0.14			4.30±0.53			3.74±0.63			2.78±0.24		
Grade	Freshmen	2.83±0.17	1.25	.293	4.29±0.57	3.25	.022*	3.61±0.48	2.43	.065	2.90±0.31	2.46	.062
	Sophomore	2.83±0.20			4.56±0.76			3.68±0.43			2.92±0.32		
	Junior	2.86±0.20			4.67±0.95			3.71±0.62			2.99±0.36		
	Senior	2.86±0.19			4.47±0.76			3.76±0.46			2.97±0.30		
Marriage status	Married	2.92±0.13	2.41	.016*	4.19±0.65	-2.23	.035*	3.58±0.42	-1.28	.200	2.90±0.32	-.91	.365
	No married	2.84±0.19			4.52±0.82			3.69±0.51			2.95±0.32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Have	2.87±0.17	2.30	.022*	4.56±0.85	2.12	.035*	3.72±0.55	1.68	.093	2.98±0.33	2.15	.032*
	Not have	2.82±0.20			4.37±0.70			3.65±0.46			2.91±0.32		
Ethical value	Very concrete	2.89±0.22 ^b	4.77	.009*	4.64±0.85	1.53	.218	3.89±0.57 ^b	13.20	.000*	2.97±0.37	.41	.665
	Sometimes confusion	2.83±0.17 ^{ab}		b>a,ab	4.46±0.84			3.62±0.53 ^a		b>a	2.95±0.36		
	Different depends on situation	2.83±0.18 ^a			4.48±0.77			3.64±0.47 ^a			2.93±0.27		

*p<.05

Table 4. Correlation of Marriage Status, Grade,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Ethical Valu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Moral Sensitivity, Ability of Communication of Subject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425)

Variables	Gender	Age	Marriage Status	Grade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Ethical Valu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Moral Sensitivity	Ability of Communication	Nursing Professionalism
Gender	1									
Age	-.01 (.822)	1								
Marriage Status	-.02 (.961)	-.28 (.001*)	1							
Grade	.17 (.001*)	.48 (.001*)	.01 (.886)	1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23 (.001*)	-.51 (.001*)	.06 (.214)	-.81 (.001*)	1					
Ethical Value	.11 (.029)	-.14 (.003)	.11 (.022)	-.03 (.544)	.06 (.260)	1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12 (.017)	.12 (.017)	-.09 (.066)	.08 (.101)	-.08 (.089)	-.13 (.006)	1			
Moral Sensitivity	-.03 (.520)	.05 (.328)	.09 (.070)	.06 (.185)	-.11 (.035)	-.06 (.209)	.25 (.001*)	1		
Ability of communication	-.06 (.258)	.02 (.636)	.12 (.017)	.18 (.001*)	-.12 (.012)	-.14 (.004)	.29 (.001*)	.37 (.001*)	1	
Nursing Professionalism	-.00 (.955)	-.04 (.442)	.06 (.197)	.11 (.028)	-.11 (.021)	-.01 (.812)	.20 (.001*)	.33 (.001*)	.27 (.001*)	1

*p<.05

Table 5. Influencing Factor to Nursing Professionalism

Variables	F	B	R ²	Adjusted R ²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1.61				5.57			
Grade		0.01			.02	0.20	.840	.33	3.06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0.04			-.05	-0.63	.527	.33	3.02
Ethical value	12.27	0.02	.15	.14	.04	0.88	.380	.97	1.03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0.16			.09	1.85	.065	.88	1.13
Moral sensitivity		0.11			.25	5.06	<.001	.83	1.20
Ability of communication		0.11			.15	3.05	.002	.79	1.27

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

2.2.5 간호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를 비교한 결과 .33~.97 사이에 있었고, 분산팽창계수(VIF)는 1.03~3.06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반적 특성 중 간호 전문직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항목은 임상실습경험이었고, 상관관계 분석에서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보인 항목은 학년과 임상실습 경험이었다. 일반적 특성 중 윤리적 가치관은 생명윤리의식과 의사소통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이중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도덕적 민감성에서는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는 주요변수는 생명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의사소통능력이었다. 따라서 학년, 임상실습경험, 윤리적 가치관, 의사소통 능력, 생명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한 결과 도덕적 민감성($t=5.06, p<.001$), 의사소통능력($t=3.05, p=.002$)에서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13.7%였다(Table 5).

3. 논의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간호 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및 의사소통능력이 간호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생명윤리의식은 4점 만점에 2.84 ± 0.19 점으로 Jeong [7], Jeon [15], Choi 와 Jeong [16]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다. 이는 간호 대학생들은 전공 교과목

의 이론과 실습 경험을 통해 윤리적 상황을 판단하거나 사고하는 기회가 많고 이를 통해 생명윤리에 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에 기인한다는 연구[15]와 같이 윤리적 상황에 자주 놓일 수밖에 없는 간호 대학생들의 확고한 가치관 확립과 생명윤리의식의 제고[17]를 위해 특정 교과목 뿐 아니라 대학의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윤리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덕적 민감성은 4.51 ± 0.81 점으로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Song 과 Lee [18]의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을 마친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점수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9]의 5.0으로 점수에 차이가 있다. 결국,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임상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곧 도덕적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며, 많은 교육과 훈련 그리고 다양한 경험의 축적

이 보다 도덕적으로 민감한 간호사로의 성장을 돕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인위적으로는 할 수는 없겠으나 임상실습 동안 혹은 각 교과목에서 임상현장에 대한 다양한 상황을 노출시키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보다 도덕적으로 민감한 간호사의 배출을 도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어떻게 그 경험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3.69 ± 0.51 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Nam 과 Kim [20]의 연구보다는 낮다. 그러나 Nam 과 Kim [20]의 연구는 1학년이 77%로 그가 주장한 바와 같이 임상 및 교내 실습을 진행해보지 않은 상태로 본인의 의사소통능력을 높게 평가한 것에 비롯되었다는 것과 Yeom [22]의 주장한대로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을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데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이

라는 것을 볼 때 의사소통능력을 부족은 곧 임상현장에서의 임상수행능력에 과 긍정적인 간호 전문직관에 영향할 수 있으므로[21]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 및 적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 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2.95 ± 0.35 점으로 Jeong [7]의 연구결과보다 낮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Yeom [22]의 연구결과보다도 낮은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경험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임상실습 경험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Jeong [7], Yeom [22]의 주장과 같이 전공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학년이 되면서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고, 또 임상실습 스트레스 등이 간호 전문직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호 전문직관은 간호사로서 성장하는 간호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이므로 생명의료 윤리의식과 같이 특정 교과목 뿐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서 그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명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의사소통능력 모두 유의한 요인이고, 이들 요인의 설명력은 13.7%로, 생명윤리의식이 높을수록 간호 전문직관이 높았던 [7]과 [23]의 연구결과와 도덕적 민감성은 윤리적 의사결정의 핵심요소이며, 생명윤리의식을 완성하는 능력이라는 이라는 연구[5]를 볼 때 생명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의 강화는 곧 간호 전문직관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밑바탕을 생각되며, 이것은 곧 간호사로서의 직업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대상자에게 계속적으로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게 하는 밑거름[7]이 된다고 생각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425명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의사소통능력 및 간호 전문직관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간호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간호 전문직관의 향상을 위한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 대학생의 간호 전문직관에 대한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도덕적 민감성과 의사소통능력의 간호 전문직관에 대한 설명력은 13.7%로 이들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 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과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간호 전문직관은 보다 확고해 짐을 확인하였다. 이에 간호 대학생의 확

고한 간호 전문직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민감성과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간호대학 교육과정에서는 윤리교육 및 의사소통교육을 통해 도덕적 판단 훈련의 기회와 소통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간호 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과 의사소통을 기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 전문직관의 형성에 관여하는 다양한 매개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References

- [1] M.K. Jeon, M.Y. Moon, A.H. Jaung, Relationship between Nurse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Job satisfaction and nursing performance. *The Journal of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Vol.14, No.1, pp.27-47, 2013.
- [2] M.A. Lee, The Efficacy of Ethics education on the moral judgment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Vol.12, No.2, pp.177-188, 2009.
- [3] J.Y. Ha, D.H. Kim, S.K. Hwang, The perception of biomedical ethics i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5, No.2, pp.216-224, 2009.
- [4] H.J. Park, M.Y. Kim, Ethical dilemma and coping types i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0, No.1, pp.75-83, 2004.
- [5] M.S. Yoo, K.C. Shon,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moral sensitivity and moral judgment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Vol.12, No.2, pp.61-76, 2011.
- [6] Y.R. Kim,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views on nursing profession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 No.2, pp.169-181, 1995.
- [7] K.S. Jeong, Effects of Self-Esteem, Sense of calling and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Wholistic Nursing Science*. Vol. 1, No.14, pp.62-70, 2021.
- [8] Faul, F., Erdfelder, E., Lang, A. G., Buchner, A.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9, pp.175-191, 2007.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9] S.J. Kwon,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 students, [Master's thesis]. DaeGu.; Keimyung University, pp.1-78, 2003.
- [10] G.S. Jeong, The effect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fresh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 No.3, pp.376-386, 2016.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6.22.3.376>
- [11] Lütznén K, Nordström G, Conceptualization and instrumentation of moral sensitivity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Methods in Psychiatric Research*. Vol.4, pp.24-28, 1994.
DOI: <https://doi.org/10.1111/j.1471-6712.1995.tb00403.x>
- [12] S.S. Han, J.H. Kim, Y.S. Kim, S.H. Ahn,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Nursing Ethics*. Vol.17, No.9, pp.99-105, 2010.
DOI: <https://doi.org/10.1177/0969733009349993>
- [13] G.H. 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47, No.6, p.380-408, 2003.
- [14] E.J. Yeun, Y.M. Kwon & O.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5, No.6, pp.1091-1100, 2005.
- [15] H.S. Jeo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8, No.3, pp.401-410, 2011.
- [16] E.-J. Choi, H.S. Jeong,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good death recognition, and self-esteem on the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5, pp.275-284,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5.275>
- [17] M.S. Kim,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ethical valu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1, No.3, pp.382-392, 2015.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5.21.3.382>
- [18] Y.S. Song, J.Y. Le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moral sensitivity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6, No.2, pp.157-166, 2020.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20.26.2.157>
- [19] H.Y. Yun, S.K Kim, H.E. Jang, S.W. Hwang & S.H. Kim. The influence of moral distress and moral sensitivity on moral courag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21, No.4, pp.360-376, 2018.
DOI: <https://doi.org/10.35301/ksme.2018.21.4.64>
- [20] H.R. Nam, M.K. Kim, Influence of Career Identity,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5, No.3, pp.25-35, 2021.
DOI: <https://doi.org/10.34089/jknr.2021.5.3.25>
- [21] E.Y. Yeom,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otional labor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4, pp.320-330, 2017.
- [22] E.J. Oh, H.S. Kang,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nurse's image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freshman.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8, No.5, pp.745-760, 2017.
DOI: <https://doi.org/10.22143/HSS21.8.5.42>
- [23] J.Y. Kim, J.R.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intrapersonal intelligence i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9, No.4, pp.435-441, 2021.
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4.435>

정 계 선(Gye-Seon Jeong)

[정회원]



- 2004년 8월 : 가천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2015년 2월 : 안산대학교 조교수
- 2012년 3월 ~ 2018년 6월 : 대한간호협회마취간호사회 회장
- 2014년 5월 ~ 2021년 6월 : 국제마취간호사회 이사
- 2015년 3월 ~ 현재 : 조선간호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운동생리학, 생명의료윤리, 마취간호

최 영 실(Young-Sil Choi)

[정회원]



- 2007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7년 9월 ~ 현재 : 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기초간호과학, 생명 윤리, 심리 및 운동